

## 중국회도문(中國會道門) 소고(小考)

한 용 수

(한국·동국대학교)

---

---

《요 약》

---

---

The societies of HuiDaoMen, appeared upon the scene of history in the later feudal age of china, were religious secret organizations whose adherents resisted their government or powerful families.

Generally, HuiDaoMens are grouped into political ones and religious ones. This distinction, however, comes from on which characteristics they laid emphasis, because both of regional and political goal appear in most of HuiDaoMens. Although those contemporary governments ordinarily called them Dow-Bees, which were groups of burglars without any political goal or regional ideal, HuiDaoMens are quite distinguishable from them.

So,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requisites of HuiDaoMen were to be a secret society, to be popular, to be religious, to be political. That is, HuiDaoMen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mere superstitious secret group, but religious societies giving comforts to people as popular societies in feudal age.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correct understandings on these HuiDaoMens, because they firstly appeared in the middle years of Ming(明) dynasty, and considerably affected the progress of Chinese history. Now I expect upcoming researches on them to bring into focus various aspects related to contemporary and social circumstances.

---

---

### I. 서론

회도문(會道門)은 회문(會門)과 도문(道門)을 합하여 칭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도문이 먼저 출현하였다. 도문은 몇몇 종교의 별칭으로, 황천교를 황천도(黃天道), 선천교를 선천도(先天道), 진공교를 진공도(眞空道)라고 한다. 또 다른 것은 교문(敎門) 갈래의 칭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팔괘교(八卦敎)중 감괘도(坎卦道), 진괘도(震卦道), 이괘도(離卦道) 등이다. 그밖에 일부는 직접적으로 교지

로 명명한 조직도 ‘도’라 칭했다. 예를 들면, 일관도(一貫道), 귀근도(歸根道) 등이다. 도문은 경전을 암송하고 신을 숭배하며, 그릇된 미신을 만들고 전파하기에 미신 색채가 농후하다고 하였다. 회문(會門)은 처음에 병기류를 명명한 것으로 예를 들면, 대도회(大刀會), 소도회(小刀會), 홍창회(紅槍會), 황창회(黃槍會) 등인데 부적과 주술에 치중하고 무술을 연마하여 거주지를 스스로 보호하였다. 그러나 회도문 내부에 각 파가 많아서 발전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명칭을 ‘…회’ 또는 ‘…도’라고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일심천도용화성교회(一心天道龍華聖教會), 어떤 것은 ‘…회’나 ‘…도’라 하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동선사(同善社), 오선사(悟善社), 도덕학사(道德學社), 어떤 것은 내부와 외부에서의 호칭을 구분하여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구궁도(九宮道)를 보제불교회(普濟佛教會), 천덕교(天德教)는 종교철학연구사(宗教哲學研究社)라 했다. 명칭이 난잡한 여러 가지의 형태는 회문과 도문이 상호 융합하는데 기여했다. 융합하여 성장한 사실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문과 도문을 합쳐 회도문이라 하고 회도문을 한 전체의 개념으로 만들었다.

중국회도문은 장기간에 걸쳐 발전했다. 깊은 산림의 나무뿌리가 휘감기고 줄기가 엉키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조직 명칭이 수백 가지에 달했다. 그중 주된 회문에는 금종조(金鐘罩), 대도회(大刀會)1), 소도회(小刀會), 홍창회(紅槍會) 등이 있고, 도문에는 일관도(一貫道), 선천도(先天道), 구궁도(九宮道), 성현도(聖賢道) 등이 있었다. 그들의 전신은 나교(羅教), 대승교(大乘教), 청련교(靑蓮教), 팔괘교(八卦教) 등의 조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명칭 양대에, 봉건통치계급은 회도문을 모두 ‘사교(邪教)’로 간주하기도 했으며, 몇몇 회도문은 민국시기에도2) 계속해서 사교로 불리우기도 했다. 종교, 자선, 공익단체의 내용

1) 산둥성을 중심으로 허난성(河南省) 동부·장쑤성(江蘇省) 북부 등지에서 성행하였다. 북방의 백련교 유파에 속하고, 남방의 홍문(洪門: 天地會·哥老會)의 영향을 받은 결사로서 주문(呪文)을 외고, 부적을 사용하며, 권법 즉 의화권(義和拳)을 익혔다. 또 빨간 술을 단 창으로 무장하여 관헌·군대 및 도둑떼로부터 마을과 가정을 지킬 것을 선전하였다. 유럽 제국주의의 침입과 청나라의 압정에 시달리던 화북지방 농민의 자위조직으로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895~1896년경 반그리스도교 폭동(仇教運動)을 일으켰으며, 1897년 독일인 선교사 2명을 살해하였다. 1899년부터 더욱 활발하여지고, 1900년경 절정에 달하여 의화단사건에도 중심 세력으로서 참가하였다. 신해혁명(辛亥革命) 이후부터 중화민국 성립 때까지 반군벌 자위투쟁을 전개한 홍창회(紅槍會)는 대도회의 흐름을 이은 조직체였다. 또 중국 동베이 지방(만주)의 항일운동에도 산둥성에서 온 이민을 중심으로 한 대도회가 참가하였다.

2) 국민정부, 국부(國府)라고도 한다. 중국국민당제1기전국대표대회 결의에 따라 1925년 7월 1일 광둥에서 조직되었다. 쑨원의 삼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하고 국민혁명을 군정(軍政)·훈정(訓政)·헌정(憲政)이라는 3단계 시기를 거쳐서 성숙시키려는 방침과 함께 연소연공정책(聯蘇聯共政策)으로 중국공산당과의 협력을 실현으로 국민혁명군을 조직하여 1926년 7월 북벌전쟁을 개시하였다. 1927년2월 정부를 우한으로 옮겼는데, 국민당 내의 좌우 양파가 항쟁함으로써 정

으로 활동한 것으로는 동선사(同善社), 오선사(悟善社), 도덕학사(道德學社), 종교철학연구사(宗教哲學研究社) 등이다. 각종 회(會), 도(道), 교(教), 사(社)는 혼합하여 성장해 나갔으며, 많은 이름이 다시 쓰거나 고쳐서 부른 명칭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신중국이 성립된 후로는 회도문으로 통합하여 지칭하고 있다.

중국 회도문(會道門)은 아직까지 종교단체로의 인정보다는 중국 봉건사회 후기에 종교와 봉건미신색채를 띠고 발생한 민간비밀결사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참고할 것은 중국역사에서 혼란기 때마다 있었던 도비(盜匪)에 대한 이해이다. 회도문과 도비를 분명하게 식별하기는 어렵다. 도비도 대집단을 이루면 회도문이 되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정치적 목표 또는 종교적 이상을 가지게 된 것을 회도문이라 규정하고 단지 도적행위만을 일삼는 무리들을 도비라고 부르기로 한다.

회도문이라는 것은 정부나 현실적 권세에 반항하는 민중의 비밀결사이며 대개의 경우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가입자들은 서로 상호 부조할 뿐만 아니라, 항상 반정부적으로 반호족적으로 행동한다. 정부쪽에서는 회도문도 도비라고 부르지만 반드시 비적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다. 회도문은 중국에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존속해 온 것이다. 회도문은 대개 종교적 비밀결사 백련회<sup>3)</sup>와 정치적 비밀결사 삼합회<sup>4)</sup>, 가로회<sup>5)</sup>의 2 대 범주로 분류되지만 양자가 모두 정치

---

부는 우한·난징의 2개 정부로 분열되었다. 1927년 4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장제스에 의한 상하이 쿠데타사건이 발생으로 국공합작은 와해된다. 이 사건 후 정부는 국민당 아래 장제스가 정치·군사상의 실제적 지도자로 우한·난징 정부도 난징으로 합체되었다. 1937년 7월 발발한 중·일전쟁 중에는 정부를 충칭으로 옮겼고 전쟁 중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항복한 후 정부는 다시 난징으로 돌아왔으나 국공관계는 또 결렬되어 중국은 내전상태로 들어갔다. 4년간의 내전을 통해 국민정부군은 괴멸상태에 빠졌고 장제스는 미군의 원조로 본토를 탈출, 타이완으로 건너가 국민정부를 재조직하고 중국 대륙본토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였다.

- 3) 민간신앙과 불교가 혼합된 민간종교. 원래는 남송의 승려 모자원(茅子元)이 정도종의 일파로서 창시한 백련종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이후 미륵신앙으로 바뀌었고 16세기 후반에는 티벳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백련교도들은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리면서 무술도 배웠는데, 원나라 시대에는 무장반란을 일으켜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청나라의 용화교·혼원교·홍양교 등은 백련교를 계승한 종파이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백련교도의 지도자였으며 1900년에 서구열강을 배격하기 위해 일어난 백련교도의 난이 실패함으로써 청조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 화교들 사이에서 백련교가 널리 퍼져 있다.
- 4) 그 기원은 1760년대에 푸젠(福建)의 장저우에서 창립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18세기 후반 이후 타이완을 포함한 화난(華南) 각지 및 동남아시아 화교 간의 민간비밀결사인 천지회와 동일단체라는 설도 있다. 삼점회(三點會)·첨제회(添弟會)·소도회(小刀會) 등과 함께 홍문(洪門)으로 총칭되었다. 1786년 임상문(林爽文)의 난 이후 청을 배격하고 명을 복구하며, 부를 타도하고 빈을 구제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여러 번 반란을 일으켰다. 주로 교통·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 광산 노동자, 각종 수공업의 직공, 영세상인, 실업자 등 도시의 하층 민중으로 구성되

적이며 종교적이다. 다만 그 행동에 있어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따름이다. 회도문에는 첫째, 비밀결사일 것. 둘째, 민중조직일 것. 셋째, 종교적 색채를 가질 것. 넷째, 정치적이어야 할 것 등의 특징이 있다.

청대부터 근현대에 활동하였던 집단을 비밀결사로 보고 학계에서도 현대 정치와 비밀결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는 대만과 중국 대륙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주로 중국대륙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 회도문 단체의 이해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백년 동안 회도문은 조용히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중국 역사발전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중국 하층사회에서 그 신도 수가 천 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가 참가했으며 신도의 대부분은 농민, 수공업자, 유민 등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로 발전한 회도문의 이해는 중국 근현대의 역사이해에 큰 디딤돌이 되기에 각 회도문의 흥망성쇠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중국회도문 특징과 역사단계

### 1. 특징

#### 1) 삼교합일(三教合一) 또는 오교(五教), 만교(萬教) 합일 사상기초

였으며, 재야 지식인과 농민도 끼여 있었다. 이성(異姓)인 사람들이 피로써 의형제를 맺어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기능도 하였다. 청나라 말기에는 쑨원의 혁명운동에 협력하였다. 혁명 후에는 그 간부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민중조직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삼합회는 신해혁명 때 활약하였던 가로회(哥老會)에 흡수되었다.

- 5) 가로회는 처음 농촌 빈민의 상호부조 단체로 쓰촨성·후난성·후베이성에서 하층민중의 형제결의의 집단결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북방의 백련교도(白蓮教徒)의 난(1796~1805) 무렵부터는 ‘반청복명(反淸復明)’을 노린 남방의 비밀결사 천지회(天地會:일명 삼합회)의 영향을 받아 가로회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엽에는 태평천국군 토벌에 활약한 상군(湘軍:후난성 지주 고용군)·회군(淮軍) 안에 조직되어, 신분이 확실한 자들을 가려서 결맹(結盟)하고 의제적(擬制的)인 가족적 결합을 이루어, 각 성에 산당(山堂)을 설치하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후난·후베이 두 성을 중심으로 널리 양쯔강 유역에 분포하였으며, 반청복명을 주목표로 활동하여 하층계급의 유력한 정치단체가 되었다. 살인·방화·강간 등을 금한 엄격한 규약을 정하여 결속한 그들은 19세기 말에는 적극적으로 반그리스도교의 배외운동(排外運動)을 하였고, 의화단운동(1898~1900)에도 참가하였다. 이어 쑨원의 혁명파와 결탁하여 신해혁명에서 주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정부 체제에는 크게 저항하였다. 공산정권 수립 후에는 정치목표를 잃고 자연 소멸이 되었지만, 민중의 전통적·민주적 조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삼교란 유(儒)·불(佛)·도(道)를 가리키고, 오교는 삼교에 다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합한 것이다. 중국 봉건사회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 지식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구신배불(求神拜佛)이 일치하지 않았다. 회도문은 삼교합일을 발표하고, 다른 신앙의 정신수요에 영합했다. 삼교합일에 회도문의 명칭이 반영되어 있다. 명대 중·후기의 삼교합일 사조는 회도문 발생의 중요한 사상 근원이다. 청대의 팔괘교는 또 공자교(空子教)라 하고, 민국시기에 구궁도는 보계불교회라 칭했다. 각 회도문 조직에서는 적지 않은 삼교(오교)합일의 서적을 간행했는데, 일관도는 《삼교보훈(三教寶訓)》, 《삼교진전(三教眞傳)》, 《회야교주성훈(回耶教主聖訓)》; 만국도덕회(萬國道德會)는 《맹자주류보권(孟子周流寶卷)》, 《오교합일(五教合一)》; 구세신교회(救世新教會)는 《오교정의(五教精義)》, 귀일도(皈一道)는 《삼교정종(三教正宗)》, 《삼교보도(三教普渡)》 등이다. 각 회도문 조직의 경권(經卷), 단훈(壇訓)에서의 삼교합일의 설교는 어느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

## 2) 삼기말겁(三期末劫)의 교의와 진공가향(眞空家鄉), 무생노모(無生老母)의 신앙

삼기말겁은 삼시삼불삼겁(三時三佛三劫)을 말한다. 회도문에서는 《삼교응겁총관통서(三教應劫總觀通書)》를 제기하여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불륜관천반(三佛輪管天槃)이 있고, 연등불(練燈佛), 석가불(釋迦佛), 미륵불장교(彌勒佛掌教)가 있고, 청양겁(靑陽劫), 홍양겁(紅陽劫), 백양겁(白陽劫)이 있다. 삼시사상의 근원은, 유가금문파(儒家今文學派)의 난세(亂世), 승평세(昇平世), 태평세(太平世)와 불교의 초회(初會), 이회(二會), 삼회(三會)를 말한다. 회도문은 입도해야 면겁(免劫)할 수 있고, 비로소 진공가향(眞空家鄉)이라는 이상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했다. 무생노모(無生老母)는 유불도 삼교의 창세자, 구세주를 초월하여 봉해지는 회도문에서 모시는 가장 높은 신이다.

## 3) 봉건가족이 교권세습제의 기초

회도문 조직자의 출발점과 귀결점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지위와 사회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지,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것이다. 회도문 내부에서는 봉건가장제의 통치, 교권세습, 족권과 신권이 긴밀히 결합한 것을 실행한다. 엄격한 각종 교직의 등급으로 세습 선교가족을 제어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회영향을 확장해 갔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와 충돌을 한 것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하기위해 집권자에게 아부하여 승진이나 부를 구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회도문은 반드시 정부당국과 모순 및 충돌이 생겼다. 세습선교가족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봉건

압박의 심각한 내용에 반항하지 않고 지난 구정권의 투쟁을 반대했다. 정부의 단속과 탄압에 직면하여 회도문은 장기간 비밀상태에 처하지 않으면 안됐다. 민국시기에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회도문도 여전히 비밀스러운 면도 있었다.

#### 4) 봉건미신과 무술연마가 서로 혼재한 일상 활동

회도문 내부에는 무속미신, 단을 설치하고 점술을 행하고, 신에게 순종하려 과음(過陰)이 이루어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등 적지 않은 것들이 성행했다. 동시에 좌공운기(坐功運氣), 무술권법 연마를 제창하고, 내공연마와 외공연마를 위해 분별하여 칭했으며, 이의 적응을 위해 그리고 많은 회도문 갈래에 문무조직을 설치했다. 예를 들면, 팔괘교에는 문장(文場:문관의 과거시험장)과 무장(武場:무관의 과거시험장)이, 청련교는 문재(文齋)와 무훈(武萱)이 있어 저마다 쓸모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회도문이 일을 일으켰을 때 무장이 주력과 중간작용을 발휘했다.

위에서 설명한 회도문의 특징으로 회도문의 성질을 결정지었고, 또한 회도문 범위의 경계를 결정지었다. 대체로 특징을 상술하거나 대다수의 특징적 조직을 상술하면 바로 회도문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중국 회도문은 완전한 중국비밀종교, 중국민간종교 또는 중국민간비밀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와 후자에는 많은 중복된 부분이 있으나 완전히 중복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회도문은 명대 정덕년간(正德年間)에 정식으로 발생하여 수백 년 간 이어왔으며, 청대와 민국시기에는 여러 번 군사를 일으켰다. 이것은 중국사회의 풍운과 급변하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제약을 받았는데, 어떤 때는 통치계급에 대한 반대와 침입하는 외국군대의 정의투쟁을 반대하기도 했으며, 야심가의 등극을 위한 동란기도와 외국 침략세력에 이용당하기도 했다.

## 2. 역사단계

### 1) 동한(東漢) 시기

회도문 역사근원의 원류는 동한(東漢)의 오두미도(五斗米道)<sup>6)</sup>와 태평도(太平道)<sup>7)</sup>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오두미도는 도교로 교화를 보급하였다. 도교로 하여금 신도를 많이 두게 하여 광범한 군중성이 갖췄다. 다른 반면에 오두미도는 스스로의 특색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6) 장릉각(張陵: 一名 張道陵, 34~156)에 의해 오두미도 창립. 《宗教辭典》, 583面.

7) 장각(張角: ? ~ 184)에 의해 태평도 창립. 《宗教辭典》, 582面.

첫째, 오두미도의 교권은 가족세습이고, 도에는 권력이 다른 교직이 있다.

둘째, 신도가 입도할 때는 반드시 물질을 봉헌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는 정신적으로 호소하고, 또한 물질상에서는 실제적인 이익이 있게 진도한다.

넷째, 정치와 도가 하나가 되게 하며, 도로써 정치를 대신한다.

다섯째, 태평도와 오두미도는 일맥상통하며 약간 다른 점은 태평도는 무술 미신색채가 농후하고 부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병의 좋고 나쁨을 해석하였다.

태평도에서 교주는 천사(天師) 또는 천사도(天師道)라고 부른다. 주요의식과 활동은 기원과 귀신을 쫓고, 신비한 물로 사람들 병을 치료해 주고, 가짜 귀신을 빌어 사람들과 연계를 하고 있어 도교의 부록파(符菴派)라고 할 수 있다.

오두미도와 태평도는 중국회도문 최초의 형식이다.

## 2) 명대 중후기

이 시기에 회도문 조직이 정식으로 출현했다. 예를 들면, 라교, 황천도, 홍양교(紅陽教), 대승교와 재교(齋教)등 이다. 이중에서 라교의 영향이 제일 컸다. 그러나 중국회도문 형성에 대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원명대의 백련교이다. 백련종도 불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파로, 교의는 주로 불교 정토종의 아미타불 정토에서 유래된 것이다. 백련종 문도들은 普, 覺, 妙, 道 4 자파로 범명을 정하고, 5계를 지키고, 남녀 같이 정업(淨業)을 수양하여 가정사찰을 조직하였다.

## 3) 청대 전기

이 시기는 회도문의 활약시기이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청수교(淸水教)가 산동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혼원교(混元教), 수원교(收元教), 서천대승교(西天大乘教) 등이 천초섬예감오성(川楚陝豫甘五省)과 천리교경직로예(天理教京直魯豫)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회도문은 사회정치역량이 이미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서 이런 반란이 청대정부와 민간을 최대로 흔들었다. 이 시기에는 팔괘교의 영향이 제일 컸다.

## 4) 청대 후기

이 때는 회도문의 발전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련교(靑蓮教)는 동치년간(同治年間)에 군사를 일으켰으며, 일관도와 선천교는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재교, 금단도, 혼원교, 재리교(在理教)는 남북 각지의 반그리스도교 투쟁에 참가했으며, 금종조(金鐘罩)와 대도회의 활동은 의화단사건의 서막이었다. 대도회, 소도회, 구궁도는 신해혁명전 각지 민중봉기에 약간 나타났다.

### 5) 북양군벌 시기<sup>8)</sup>

이 시기는 회도문이 유행한 때이다. 회도문 지도자들은 북양군벌과 관료들과 결탁하여 전국적으로 입안 등록된 회도문 조직을 수립하여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져 나갔다. 주된 조직으로는 동선사북경총사(同善社北京總社), 도원(道院)과 홍만자회(紅卍字會), 구궁도의 경사보제불교회(京師普濟佛教會)와 오대산보제불교회(五臺山普濟佛教會)가 있다. 홍창회 운동도 이 시기에 일어났는데, 화북 농촌에서 신해혁명 후 사회 대변동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발생했다.

### 6) 남경 국민정부 전기

이 시기는 회도문이 번창한 시기로 국민당 집권 후 통치의 사회기초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회도문을 지지하고 육성했다. 동시에 계급모순의 격화 때문에, 이 때에 지주관료의 박탈과 압박에 반항하여 도회(刀會) 운동이 일어났다. '9·18' 사변 발생 후, 동북지역의 대도회, 홍창회는 항일 무장투쟁에 참가했다.

### 7) 항일전쟁 시기

회도문의 분화시기로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전쟁 후 회도문 조직은 이미 저항 봉기했다. 중국공산당은 모두 단결하여 항일과 민중통일전선 조성을 위해 회도문에 대해서 쟁취와 연합의 책략으로 채택했다. 이와 동시에 회도문 조직의 일부에서 일본의 유혹과 매수로 매국행위를 하고 적에게 투항하여 앞잡이가 되어 중화민족의 영원한 죄인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국민당이 회도문에 대한 통제와 영향이 매우 미약했다.

### 8) 남경 국민정부 후기

이 시기는 회도문이 의지할 곳이 없는 시기로 국민당은 회도문의 통제와 이용을 강화했다. 중공군 국민당의 전쟁이 차차 중공군 승리의 상황이 되었고 일

---

8) 이 정권을 베이양정부, 이 때(1913~28)를 베이양시대라 한다. 베이양은 선양·즈리(直隸:허베이)·산둥 3성의 총칭으로, 처음에는 즈리총독 룡루(榮祿)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위안스카이가 즈리총독 겸 베이양대신(大臣)이 된 뒤로는 그의 사병적 색채가 짙어져, 신해혁명 및 그 이후 그의 정치적 책략은 이것에 바탕을 두었다. 1916년 위안스카이가 죽자 뤄치루이(段祺瑞) 등의 안후이파(安徽派), 평귀장(國璋)·차오쿤(曹)·우페이푸(吳佩孚) 등 즈리파(直隸派), 장쥘린(張作霖)의 평톈파(奉天派)로 분열하였다. 안후이파·평톈파는 일본, 즈리파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남방의 혁명파나 서남군벌(西南軍閥)에 대항함과 동시에, 그들 상호간에도 지방에 대한 쟁탈전을 벌여 군벌혼전 사태가 일어나, 어떤 것은 멸망하고, 어떤 것은 장(蔣)정권에 흡수되었다.

관도, 동선사 등 회도문은 역사조류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국민당의 획책하에 적극적으로 변하여, 많은 반공 반인민 폭동이 일어났다.

### 9)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회도문이 쇠망해가는 시기로 신중국 성립후 많은 농민, 수공업인들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전국에 보편적으로 구축된 농회와 공회 조직은 공산당이 이끌었고, 회도문의 조직은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다. 인민정부는 회도문을 여러차례 탄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분명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회도문을 근절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회도문은 오랜기간 비밀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헌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회도문 내부에는 여러 갈래가 많고 서로간의 관계도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에 단서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학술계에서는 라교와 일관도 여러 단체의 성질이 다르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회도문 연구가 1949년 전에 이미 시작했지만, 문화대혁명 직전의 학술연구는 비교적 박약한 부분이 있다. 다행이라 할 만한 것은 중국공산당 11회 3중전회 이래로 분류하여 보관한 공문 자료를 계속 개방하여 중국 등지에서 학술발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제공이 되고 있다.

## Ⅲ. 명대 후 회도문 출현

### 1. 회도문 출현시의 사회

명대 중기 이후 사회생활은 흥성기에서 쇠퇴의 길로 전환되고, 사회모순이 점차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황제는 땅을 약탈하여 그 땅을 넓혔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고향을 떠나 아주 어려운 처지였다. 명 영종(英宗)이 정권을 잡은 후 유랑민은 전국에 널려있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십분의 일을 차지했다. 봉건 토지소유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부가세도 배로 증가되어 곳곳에서는 농민봉기와 유랑민들의 봉기가 폭발하였고 규모는 점점 더 커졌다.

군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이 군관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였다. 농민, 유랑민, 사병은 자신들 가족의 앞날과 운명에 대해서 걱정과 공포감에 쌓여 있었기에 강렬한 군중들의 단합의 시작되었고, 비합법적인 길로 자신들의 처한 환경과 자리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중국회도문은 이런 불안한 사회 환경 속

에서 광범한 농민들의 심리적 수요에 따라서 조직된 것이다.

## 2. 나교(羅敎)<sup>9)</sup>

나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를 갖춘 조직이다. 영향력은 아주 거대하고 중국근현대의 많은 회도문조직과 나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교의 창시자 나몽홍(羅夢鴻: 1442-1527)은 도호(道號)가 무위거사(無爲居士)인데 다른 자료에서는 나청(羅淸)으로 기록된 것도 있다. 그가 3살 때 부친이 사망하고 7살에 모친마저 사망하여서 숙모집에서 생활하였다. 부모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몽홍은 성인이 된 후 쌀을 운송하는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온갖 고초와 생활의 고통을 다 겪으며, 이런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결심하고 자기 스스로 벗어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길을 찾기로 하였다. 28세에 제대한 후 그는 스승과 친구를 찾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스스로 정진하는 세월을 보낸 후 마침내 성화 18년(1482)에 진리를 깨닫게 된다.

명대 말 출판된 《불설삼황초분천지탄세보권(佛說三皇初分天地嘆世寶卷)》에 의하면 나몽홍이 13년을 이렇게 지내왔다고 한다. ‘염불을 8년 읽고 간단한 과의를 선택해서 3년 읽고, 돌아다니다 두 번 마음을 열고 누우치고, 낮에는 서남쪽을 향하여 앉아서 일깨워주었다.’ 나몽홍이 정통 불교를 접촉한 것을 보면 8년동안 아미타불 읽고 3년 동안 《금강과의(金剛科儀)》를 읽어 결국 그 중의 일부분 사상 자료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나교체계를 창립하였다. 나몽홍이 창조한 나교의 교의는 집중적으로 5부 6책에서 실현되었다. 그것은 각각 《고공오도권(苦功悟道卷)》, 《탄세무위권(嘆世無爲卷)》, 《과살사현증월시권(破薩邪顯証鈞匙卷·上下兩冊)》, 《정신체의무수증자재보권(正信除疑無修証自在寶卷)》, 《외외불동태산심근결과보권(巍巍不動泰山深根結果寶卷)》 이러한 경권은 나몽홍이 생전에 정식으로 출간된 책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공오도권(苦功悟道卷)》: 나몽홍이 13년 동안 각고하게 참오대도한 경과를 상세히 서술했다.

《탄세무위권(嘆世無爲卷)》: 고해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면 입교하여 스승을 배알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과살사현증월시권(破薩邪顯証鈞匙卷)》: 모든 것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간사하고 추악한 것은 반드시 제거하는 동시에 나교의 무위정법(無爲正法)을 요점으로 하라고 신봉자에게 주었다.

《정신체의무수증자재보권(正信除疑無修証自在寶卷)》: 앞쪽에 나교 교의(敎義)를 서술했다. 신봉자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동시에 백련교, 미륵교 등

9) 무위교(無爲敎), 오공교(悟空敎), 나도교(羅道敎)라고도 불린다.

사람을 해치는 술책을 질책하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말라고 일깨워주었다.

《외외불동태산심근결과보권(巍巍不動泰山深根結果寶卷)》: 우주근원과 세계를 일으키는 것을 연구토론하고 신도들에게 나교를 믿으려면 태산처럼 확고부동하게 믿을 것을 요구하였다.

나몽홍은 유가의 송명이학, 불교의 허위와 도가의 무위사상을 흡수하였다. ‘虛空’ 이 관념을 우주만물의 근원을 제기하고 이것으로 우주원인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나몽홍은 또 허공을 인격화한 무소불능의 신 ‘무극(無極)’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탄세무위권(嘆世無爲卷)》에 쓰기를 “무변의 허공은 무극신이고, 대천세계는 늘 허공에 안주하며, 대천세계는 무극화체(無極化體)이고, … 허공은 원래 무극신이다.”고 하였다.

나몽홍이 교를 설립할 때 아직 진공가상과 무성노모에 대한 서술이 없었고 비슷한 방법은 있었다. 고향을 가정과 향토의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중국 봉건사회의 보통백성의 출발점과 귀착지로 전통 관념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모는 두 가지를 생산하는 구체 담당자이고 광활한 농촌에서 비교적 높은 가정지위를 갖추었다. 그가 낳고 길러준 자녀들은 그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하고 친절한 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소농경제의 봉건사회의 고향과 노모 이 두 단어는 보통 백성들에 대하여 크나 큰 흡인력과 호소력을 갖추고 있다.

### 3. 황천도(黃天道), 홍양교(紅陽教), 서대승교(西大乘教)

나교의 창립은 중국 회도문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는데 조직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회도문은 나교 분파에서 만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교는 모든 중국 회도문 조직의 원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렇지도 않다. 나교 이후에 나타난 황천도, 홍양교 등도 중국회도문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 1) 황천도<sup>10)</sup>

황천도의 창시자는 이빈(李賓) 인데 법호는 보명(普明)이고, 호안선사(虎眼禪師)라고도 부른다. 이빈의 자서전 《호안선사유류창경권(虎眼禪師遺留唱經卷)》에 의하면 “보명은 북부의 농민으로서 스승을 참배하고 친구를 찾고 갈고 닦아 깨달음에 이르고 … 호가 보명이라는 호안거사가 황천성도(黃天聖道)를 설립하고, 갑자기 노파심이 생겨, … 의보권과 청정진경을 남겼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보명여래무위료의보권(普明如來無爲了義寶卷)》을

10) 명청시기의 백련교의 한 갈래.

가리키는데, 이빈은 가정(嘉靖) 37년(1558)에 황천도를 창립했다.

이빈은 직예선화부흥녕진상우촌(直隸宣化府興寧鎮上牛村)에서 셋째로 태어났는데 출생년은 불명확하다. 어려서 농사를 지었고, 청년 때 입대하여 북방 변방을 지켰고, 몽고족 침입자와 반항하는 전투 중에서 한쪽 눈을 잃어 호안선사라고 불리 운다. 퇴역 후 만년을 선방보정(膳房堡定)에서 보냈다. 가정 32년(1553) 그는 직예회안위순성천사자촌(直隸懷安衛順聖川獅子村)에서 명인을 만나 5년 후, 황천도를 창립하였다. 여기에서는 나교 무위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고 무위조(無爲祖), 무위법을 빈번히 제기하였다.

황천도는 동시에 삼기말겁(三期末劫), 미륵장도(彌勒掌道)를 주장하였다. 이와 호응하여 또 일월성신은 모두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년을 18개월로, 18시간을 낮과 밤으로, 한 달을 45일로 하였다. 주야는 144刻, 회전주기, 총 810을 1년으로 했다. 이러한 년, 월, 일, 시간의 변경사항은 그 후 각종 회도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황천도는 부부가 함께 수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인들은 내부적으로 이도(二道)라 불리웠다. 이빈의 처 왕모(王某)는 법호가 보광인데 바로 부부가 함께 수련하여 전도한 것이다. 그들의 두 딸 보정(普淨)과 보조(普照)는 모두 당시의 강씨 일가에 시집갔는데 '이강(二康)'이라고 부른다. 이빈 부부는 세상을 뜬 후 한담에 합장했다.

이빈이 죽은 7년 후, 그의 아내는 통전묘법(通傳妙法) 교권을 이어받아 7년 만에 만력(萬曆) 4년(1576) 귀궁하여 또 그의 두 딸 보정과 보조가 이어받았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 보조의 딸 보현(普賢)이 이어받았다. 이빈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권이 가정내부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외손녀가 이어받게 되었다. 이것은 교권세습제의 특이한 예로서 시간도 길지 않았다. 청조 초기에 이르러 교권은 또다시 누씨 성의 남자의 손에 가게 되었다.

여기서 3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황천도는 나교 조사(祖師)의 영향을 받았다.

둘째, 황천도는 처음 명칭이고 후에 황천교(黃天教)와 황천교(皇天教)란 명칭이 생겼다.

셋째, 황천도와 황천교는 동의어로서 그 후의 회도문 조직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 2) 홍양교

홍양교(紅陽教)의 최초의 이름은 홍양교(弘陽教)인데, 청조 건륭년간에 관방에서 당시 황제 홍력(弘歷)의 휘(諱)를 피해 홍양교(紅陽教)로 고친 것이다. 이것도 청양(靑陽), 홍양(紅陽), 백양삼세삼겁(白陽三世三劫)을 믿었기에 이번 고침은 교의에 어긋나지 않았다.

홍양교의 창시인은 ‘표고노조(飄高老祖)’이다. 많은 명대 각본인 홍양교의 보권(寶卷) 머리에는 모두 표고조사가 중앙 연대에 단정히 앉아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혼원홍양표고조임범경(混元弘陽飄高祖臨凡經)》에서는 홍양교의 사상 근원을 알려주었다. 이 책은 나교의 창시인 나몽홍(羅夢鴻)을 숭배하였다. 홍양교가 나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교를 초월하였다. 고증에 의하면 혼원(混元)이란 단어는 도교에서 창세설의 술어이다. 천지가 생기기 전의 요원한 시대를 말한다. 북송 진종황제는 도교조사 노자를 혼원상덕황제(混元上德皇帝)로 봉했다. 명조의 가경황제는 도교의 진무대제를 ‘혼원륙천전법교주 … 천존’(混元六天傳法教主 … 天尊)’으로 봉하였다. 영향을 받아 화북에서는 혼원을 명칭으로 한 도교지파가 나타났는데 봉건통치계급들은 사교로 보았다.

《홍양고공오도경(弘陽苦功悟道經)》에서는 전문적으로 표고 즉 한태호(韓太湖)가 열심히 깨달은 경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홍양교는 삼교합일을 주장하였다. 《혼원홍양표고조임범경(混元弘陽飄高祖臨凡經)》의 내용을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長子), 이자(二子), 삼자(三子)는 각각 공자, 석가와 노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sup>11)</sup> 이렇게 홍양교에서 제창하는 삼교합일은 더욱 높은 경지로 진입하며 시공의 한계를 벗어나 세 분(공자, 석가, 노자)의 부동한 연대와 부동한 지방에서 활동한 역사 인물들을 억지로 가정안으로 가져왔다.

### 3) 서대승교의 형성

서대승교는 불교 비구니 사찰을 활동기지로 하는 회도문이다. 이 절은 북경 서쪽교외의 향산 남쪽기슭의 황촌(黃村)에 있는데 보명사(保明寺), 현응사(顯應寺), 황고사(皇姑寺)라고도 한다. 후에 왕삼(王森)이 경도에서 창설한 대승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서대승교라고 하였다.

서대승교의 창시인은 전설중의 황실 여인 여보살(呂菩薩)이 아니라 전설중의 제5대 전수자인 귀원대사(歸圓大師)이다. 여보살(呂菩薩)과 귀원(歸圓)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전 《清源妙道顯化眞君二郎寶卷》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서대승교는 명확히 나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 두 회도문의 초기 경전이 모두 5부 6책이란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상술한 경전 중에는 나교의 경전과 비슷하거나 완전히 같은 단어나 문장이 있는데 ‘명심견성, 무변허공(明心見性, 無邊虛空)’ 같은 것들이다. 그렇지만 나교와 비교 할 때 서대승교는 역시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서대승교는 더 농후한 도교색채가 있다는 점이다. 이 교의 거점인 황고사에서는 불교계통의 신상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교신선도 모시고 있

11) 喻松青, 《明清白蓮教研究》, 四川人民出版社, 1987, 49面.

고, 비구니는 관례에 따라 머리를 깎지 않고 수건으로 메었는데 도가의 비구니 차림과 비슷하다.

둘째, 서대승교의 노모란 이 모호한 개념은 나교의 무극성조(無極聖祖)와 같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수된다. 서대승교는 최초로 무생노모란 이 개념을 제창한 회도문중의 하나일 것이다.

셋째, 서대승교는 공개적인 절과 비밀스러운 조직이 서로 결합하여 거대한 유통성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창시인 귀원은 권귀현관과 교재를 잘하여 황제의 모친까지 되어 많은 지원금을 찬조받아 사찰을 증건하고 《소석대승보권(銷釋大乘寶卷)》 등의 경권도 계속 재판할 수 있었다.

넷째, 서대승교는 황고사란 절을 이용하여 종교행사 때마다 빈번히 대형법회를 거행하여 각 유형의 보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기전(根基錢)과 같은 개념을 제일 먼저 제기하였다. 그리고 보시량의 다소로 죄를 씻고 덕을 쌓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

#### 4) 동대승교

동대승교는 서대승교와 모종의 혈연관계가 있다. 동대승교의 경전에서는 심심찰게 보명사를 언급하고 전문적인 편쪽으로 여보살을 선전하고 서대승교와 같이 그녀를 관음의 화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황성조(皇聖祖), 원통노모(圓通老母), 원통교주(圓通教主)라고 불렀다. 서대승교의 경전중 《소석수원행각보권(銷釋收圓行覺寶卷)》, 《소석현성보권(銷釋顯性寶卷)》, 《소석원통보권(銷釋圓通寶卷)》 등은 동대승교의 교도들도 보는 보권이였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동대승교의 창시인 왕삼이 만력초년에 서대승교의 교도였다고까지 단언하고 있다.<sup>12)</sup>

동대승교의 창조조사 왕삼은 원명이 석자연(石自然)이었는데 후에 왕삼이라고치고 왕도삼(王道森)이라고도 불리웠다. 원적은 포주(지금의 금주현)이고, 그곳의 피혁공이었다. 가경43년에 만주(지금의 하북만현) 석불구(石佛口)로 이주하였다. 포주와 만주 두 곳은 당시에 모두 서대승교의 선교대상 지역이었다. 때문에 왕삼이 직접 참가한 여부를 떠나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당시 포주부근에는 또 다른 회도문들의 활동이 있었다. 포주 이북 백여리의 밀운위(密雲衛)는 나교의 발원지이다. 포주부근 순의(順義)에서는 정덕년간에 구수오계 및 좌공운기법의 정공교(靜空教)가 나타났는데 사찰이름이 청정사(淸淨寺)이다. 이러한 회도문 활동이 모두 왕삼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12) 濮文起, 《中國民間秘密宗教》, 浙江人民出版社, 1991, 57面.

#### IV. 신중국 성립 후 회도문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당시, 전국에 일관도, 선천도, 구궁도, 동선사, 천덕성교, 성현도, 귀근도 등 회도문 단체의 합계가 300 여종 이었고, 지도자와 핵심 활동자가 82만 명, 신도수가 약 1300만 여 명이였다.<sup>13)</sup> 이 회도문 대부분이 간첩으로 이용했고, 그때 공산당, 중국정부 탄압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지도자들은 대체로 모두 정치적으로 극단적이게 되었을 것이다. 산서의 회도문 신도는 약 100만 명이였고,<sup>14)</sup> 하북에는 일관도, 구궁도, 성현도 등 백여 종이 있었으며,<sup>15)</sup> 천진의 회도문은 약 153종, 산동 각종 회도문의 합계가 176종이었으며, 처벌받은 회도문의 요원들이 1711명이고, 회도문 신도 가운데 약 69만 명이 처벌받았다. 그중 일관도는 18만 명, 성현도는 약 4만 명이다.<sup>16)</sup> 호북에는, 일관도, 대도회, 도덕학사, 홍창회, 동선사 등 110 여종 이다. 영하(寧夏)에는, 20종의 회도문이, 신도는 363만 명이 넘었다.<sup>17)</sup>

중공중앙의 새로운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대단히 중요시 되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회도문 활동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 발전하기 위해 당과 정계의 최하부층 조직과 비공산당원 단체에 참여했다.

둘째, 중국정부의 종교와 신앙의 보호 정책을 이용하여 도피와 공격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셋째, 홍콩, 대만 같은 국외로 이동 한 것이다. 국외에서 대처하여 세력을 결탁하고 역으로 중국 내에 진입을 진행하고, 합법적인 경로로 비합법적인 활동을 진행하여, 내외에서 호응을 얻어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 V. 결론

회도문은 중국봉건사회 후기의 산물인데 종교적인 색채를 띤 봉건미신조직으로서 발생, 발전, 멸망의 과정이 있다. 명대 중기 이후에 나타나 발전한 회도문의 주된 인식근원과 사회근원은 사람들이 그 현실에 대한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밀결사나 미신조직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조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

13) 《當代中國的公安工作》，當代中國出版社，1992，65面.

14) 《羅瑞卿論人民公安工作》，群眾出版社，1994，27面.

15) 《當代中國的河北》，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314面.

16) 《當代中國的山東》上，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9，106面.

17) 《當代中國的寧夏》，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618面.

치와 종교의 관심이 나타난 회도문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인데 종교 활동을 위한 체계적 모습에서 쉽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봉건조직으로서의 회도문은 비록 관료와 지주의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전체제도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모개인에 대한 반대였던 면도 있기에 회도문의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그 시대의 사회와 결부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參考文獻》

- 《人文百科全書大系·宗教百科全書》，中國人文百科全書出版社，1994。  
濮文起，《中國民間秘密宗教》，浙江人民出版社，1991。  
喻松青，《明清白蓮教研究》，四川人民出版社，1987。  
任繼愈，《宗教辭典》，上海辭書出版社，1983。  
林尹·高明，《中文大辭典》，中國文化大學出版部，1985。